

고창군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도 복구비 지원”

전북도내 두번째로 조례제정...보험 가입비 지원도 25%로 상향 심덕섭 군수, 호우 피해 아산·홍덕면 방문...피해 복구 현장 격려

고창군이 농업재해시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농업재해시 피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에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지원대상,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피해 발생 신고,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25%로 상향해 자연재해 발생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심덕섭 군수는 300mm 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폈다.

심 군수는 아산면 학전마을과 홍덕면 석우마을을 방문, 응급조치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된 아산면과 해리면을 잇는 지방도 733호선 일부에는 장비를 투입해 토사 제거작업 중이다. 또 주택 뒷면 절개지가 유실된 홍덕면 석우마을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복구가 한창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와 폭염 등 어려운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심덕섭(맨 오른쪽) 고창군수가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린 홍덕면 석우마을의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창군 제공>

희귀 ‘댕구알버섯’ 남원에서 10년 연속 발견

산내면 입석마을 사과농장 한곳서...지혈·해독 등 효과

세계적 희귀종 ‘댕구알버섯’이 남원 산내에서 10년 연속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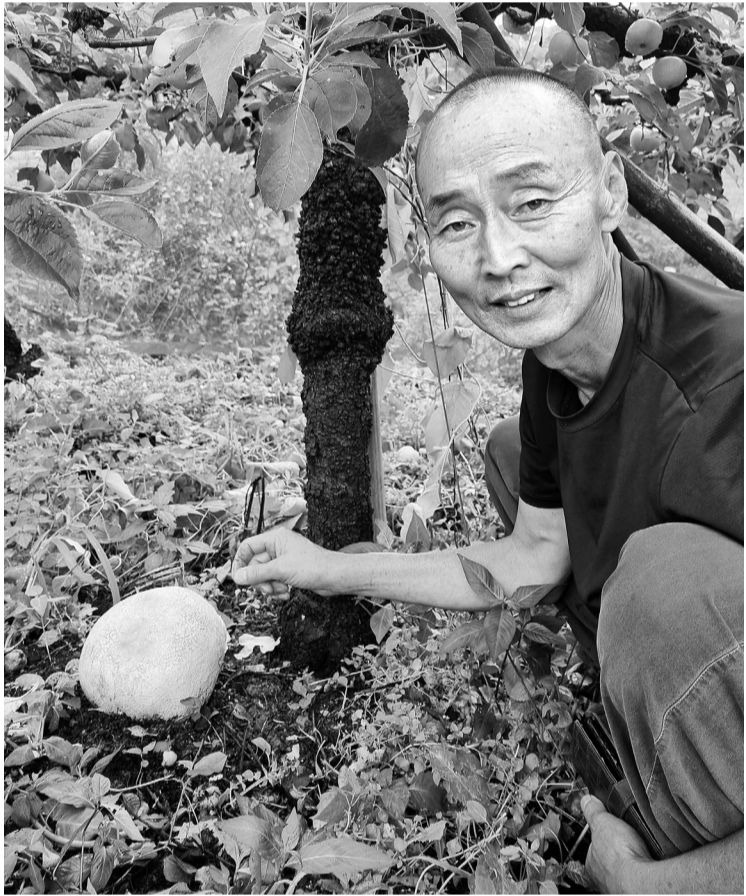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 이장(60)이 자신의 사과농장에서 댕구알버섯 1개를 발견했다. 지난 2014년 첫 발견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이다.

‘댕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판,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다. 전주, 담양 등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이곳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견된 경우는 흔치 않다.

해외에서는 2012년 캐나다에서 26kg에 달하는 댕구알버섯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지환 이장마을은 이장은 “벌써 10년째 같은 곳



주지환 이장마을 이장이 자신의 사과농장에서 10년 연속 발견된 댕구알버섯을 가리키고 있다. <남원시 제공>

에서 댕구알 버섯이 발견돼 신기하다. 계속해서 댕구알버섯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여행 즐기고 여행경비 지원받고

고창문화관광재단 이벤트 26일까지 신청...팀당 최대 10만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고창군을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숙박 여행객의 여행 경비 지원사업인 ‘고창한밤’을 추진한다.

‘고창한밤’은 국내 소도시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관광지로서 고창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8-10월 동안 고창군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고창한밤’ 여행미션을 수행하고, 이후 SNS에 후기 업로드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보 효과, 여행 코스의 차별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총 100팀을 선정하며, 고창군 내에서의 소비 내역에 따라 1팀당 최대 1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은 고창 방문의 해이자 유네스코 7관왕을



달성한 뜻깊은 해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반려동물 영업장 54개소 점검

불·편법 영업·동물학대 등...무허가 적발시 최대 2000만원

정읍시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 수입, 장도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편법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정읍시에는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54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으며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가벼운 사항은 계도조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마켓’ 휴가철 이벤트

20% 할인...농원 숙박권 등 추첨

고창군이 직영하는 통합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알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지역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벤트 기간 고창마켓에 방문하면 매일 출석체크와 추첨을 통해 상하농원 숙박권, 구매고객 대상 쿠폰 등을 지급하고 특가상품에 대해서는 20% 할인혜택을 주는 등 이벤트를 만나 볼 수 있다.

고창마켓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질 좋은 농식품을 좋은 가격에 만나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